

동양선교교회

성도여러분에게 드리는 12번째 글

3개월 만에 열린 제직회 1분 만에 폐회 TRO 거부되자 열었다는 시늉만 낸 음흉한 수법

지난 9월 24일 금요일예배가 끝난 뒤 본당 대 예배실에서 5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달 제직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6월에 제직회가 열린 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열린 제직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제직회는 1분도 안 돼 사회를 맡은 박 제임스(한국명 : 박석재) 장로가 갑자기 폐회를 선언, 어이없게도 회의 진행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처음 우리는 “한 달 만에 한 번씩 열도록 우리 교회 헌법에 규정된 제직회를 왜 중단하고 있는냐?”는 성도 여러분들의 강경한 요구를 받아들여 제직회를 연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박석재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이영세 박환, 채홍인등 6인의 장로들은 그 사이 음흉한 술수를 만들어 교인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 보다 사흘 전인 21일, 법원에 긴급 접근금지명령(TRO)을 신청, 그들과 의견이 다른 21명의 교인들을 묶어두고 제직회를 열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담당판사가 바로 그들에게 당회를 회복시켜준 에미 호그 판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호그 판사는 “긴급 접근 금지명령(TRO)을 발부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이를 기각해버린 것입니다. 당황한 이들 장로들은 할 수 없이 제직회는 열었으나 몇 사람들이 “재판 결과(지난 11번째 성도들에게 드리는 글에 자세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에 따라 임기가 끝난 박석재 장로가 사회를 보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항의하자 한 마디의 답변이나 설명 없이 폐회를 선언한 것입니다.

에미 호그 판사가 “TRO 사안이 아니다”며 기각시켜

애들 장난인지? 아니면 코미디인지? 도대체 우리교회는 왜 이래야만 합니까? 사회보던 사람이 아무런 설명없이 그냥 나가버리지를 않나, 사회자가 갑자기 “폐회 하겠다”고는 그냥 내려가질 안나. 그것이 말썽을 일으키자 이번에는 폐회 동의를 자신이 제안, 가부도 묻지 않은채 “폐회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수 십 명의 교인들을 남겨둔 채 행하니 단상을 내려가 버리지 않나, 아니면 경찰이 와서 회의를 못하게 하지를 않나, 정말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얘기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금요기도회 하자던 박장로, 교인들이 모여들자 자취감춰
교인들만 참석한 눈물의 기도회, 오히려 은혜충만, 성령충만**

이날의 비극은 그 다음에 또 있었습니다. 박석재 장로는 폐회를 선언한 뒤 “바로 이어서 금요 기도회 모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모임 준비를 위해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앞아 있던 성도들은 한참을 멍 하니 있다가 “좋습니다. 그럼 교회가 이 지경이니 박장로 요구대로 우리 모두 합심해서 기도회를 가집시다” 면서 모두 앞자리로 모여 앉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회를 위해 모여들자 정작 진행자요 모임을 주창했던 박석재 장로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기다려도 나타나지를 앉았습니다. 박석재는 물론 다른 어떤 시무장로도 나타나지 않았 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영식 장로를 내세워 눈물의 기도회를 은혜롭게 마친 뒤 교회를 나왔습니 단.

기도회를 갖자고 해서 모두 모였더니 도망가 버린 장로들.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영송장로, 21명의 교인들 몰아내는 소장에 위증, 서명
교회밖 당회 참석도 못한 처지에 “그럴수 밖에 없었다”고 증언**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박제임스(한국명 : 박석재)와 엄문섭 장로는 더 이상 시무 장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당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장로는 이세훈, 이영세, 박환, 채홍인 장로 등 4명입니다. 박석재와 엄문섭 장로가 시무장로에서 떠나려 하자 이영송 장로가 그 자리를 탐했는지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영송장로는 21명의 성도들을 쫓아내려는 소송장에 증인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영송 장로는 위증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영송 장로가 위증한 이 서류의 제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After November 8, 2009, the Defendants' disruptions of the Church Session meetings were so severe that we had to cancel several Session meetings. Finally, I along with other Session Elders had to hold our meeting in locations away from the church.

이 내용을 요약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목사가 떠난 지난 2009년 11월 8일 이후 피고인들의 당회 모임에 대한 방해가 너무 심해 여러 차례 취소해야 했으며 결국 나(이영송)는 다른 당회원들과 함께 교회밖의 장소에서 당회를 열 수 밖에 없었다.”

얼마나 황당한 증언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3번째 편지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 1월 10일의 임시 당회의 경우입니다. 당회가 열리기 훨씬 전에 우리가 들어가자 이영송장 로가 “노수정장로의 임기문제는 노장로의 개인문제이지 당회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나가서 당사자 들끼리 해결하라”고 말하자 당장에 노수정 장로가 “이새끼, 저새끼” 하면서 이장로에게 쌍욕을 하기 시작, 당회원간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박제임스(한국명 : 박석재)

장로는 채홍인 장로덕에서 당회를 열겠다며 그들 패거리를 모두 끌고 갔고 그 자리에서 그들만이 모여 당회를 열었습니다. 따라서 이날 당회는 노수정장로의 쌍욕으로 시작된 이영송장로와의 싸움으로 중단된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당회는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교회밖으로 장소를 옮겨 열렸습니다. 우리는 채홍인장로 덕까지 쫓아간 일이 없습니다. 결국 이날의 임시당회 중단도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날 채홍인장로 덕에서 열린 불법 당회에는 박석재, 엄문섭, 이세훈, 이영세, 박환, 채홍인 그리고 최수남 장로가 참석했고 이영송장로를 비롯한 정영식, 안광석, 홍성식장로 등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영송장로는 참석하지도 않은 교회 밖 당회를 마치 본인이 주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합법적인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애초에 정의파였던 이영송장로 어느 날 갑자기 배신 10계명 위반한 장로 어떻게 장로라고 할 수 있는가?

이영송장로는 지난 3월 3일에 박석재 장로가 6명의 시큐리티 가드를 세워놓고 자기편의 장로들만 참석시키려 했던 3월 정기 당회에 참석도 못했었습니다. 그날 가드들은 ID를 요구했고 이영송장로는 ID가 없는데다 반대파라는 이유로 당회원실의 출입을 금지 당했었습니다.

이영송 장로는 지난 3월 중순 경까지 박석재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과 반대 입장에 서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정의파 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랬던 그가, 어느날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편이었는데 배신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영송장로가 박석재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과 어울리고 우리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거짓 증언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과거에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한 소송의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거짓 증언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신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위반입니다. 평신도도 아닌 이영송 장로님이 만인 앞에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10계명을 위반한 장로님이 어떻게 교회를 휘젓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이영송 장로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인사회의 저명인사인데 10계명을 위반한 장로서 어떻게 한인사회에서 활동을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입니다.

이영송장로는 교인들에게도 새빨간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주일 3부 예배 광고시간에 흥민기 목사를 추켜주는 발언을 통해 “장로들이 서울을 방문, 흥목사가 1만 7-8천 명이 모이는 부흥회의 현장에 갔었다”고 주장 했었습니다. 박석재, 엄문섭, 이세훈 등 3명의 장로들이 7월 12일 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서울을 방문했었고 그 사이에 흥목사는 대규모의 부흥집회를 인도한 일이 없었으며 서울에 갔었던 어떤 장로도 그런 대규모 집회에 간 일이 없다고 증언 했습니다. 결국 이영송 장로는 교인들 앞에서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동양선교교회 비상대책 특별기도회 예배 안내

일시 : 매주 주일 오후 1시

장소 : 월드미션 신학대학교 6층 대예배실.

(500 shatto Pl. #600. LA, CA. 90020)

문의 및 안내전화 : 213-820-8550, 310-339-6062, 213-505-7344

교회 돈 이제 바닥, 인수당시 175만 달러, 현재 31만 불이 전체 특별헌금 지정헌금 등 한푼도 없고 100만달러 사용기록도 없어

지난 9월 24일 제직회 때 배포한 재정보고 서류는 참석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 놓았던 교회 돈이 거의 바닥이 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말과 금년 초 우리는 6명의 장로들에게 강목사가 놓고 간 자금의 내역을 밝히라고 여러 번 요구했었습니다. 박제임스(박석재)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일이 어렵게 되자 할 수 없이 지난 4월 제직회 때 뒤늦게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목사가 나갔을 때인 11월 초에 우리 교회 돈은 선교부 기금까지 합해서 모두 1백 74만 6천 930달러이었습니다.

후하게 쳐서 지난 11월과 12월에 20만 달러 이상을 썼다고 해도 12월말 잔고는 최소한 1백 5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돈은 각 부서의 은행 잔고를 포함해서 모두 31만 8천 515달러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 대로라면 그 동안에 무려 1백 18만 1천 489달러를 써 버린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재정 적자가 49만 9천 513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 적자를 빼고 나면 68만 1천 972달러인데 이 돈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가운데는 아파트 렌트수입과 주차장을 빌려주면서 받고 있는 대금 그리고 오후학교에서 재정부에 매달 납부하는 기금(지난해는 10만 달러를 납부했는데 8만 달러의 행방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자 재정부는 매달 나누어서 지불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등은 단 한푼도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돈을 합하면 최소한 100만 달러의 교회 돈이 설명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액수는 그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비, 시큐리티 가드 비용, 장로들 출장비 등 멋대로 쓰고 박석재, 엄문섭 안나가는 것은 이권과 관계있다는 주장도 솔솔

우리가 추측하기로 이 돈들은 변호사비와 한꺼번에 40여 명씩 무더기로 수차례 동원한 시큐리티 가드 비용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써버린 것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흥민기 목사를 초빙한다는 이유로 박석재, 엄문섭, 이세훈 등 3명의 장로들이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3명의 비행기 표와 4박 5일 동안의 호텔비 그리고 식비 등 최소한 1만 달러에 달했다는 것이 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흥목사가 뉴욕에서 집회를 했을 때는 박석재를 비롯한 이영송, 엄문섭, 이세훈, 이영세, 채홍인 등 6명의 장로들이 때를 지어 담임목사 구걸 청빙길에 올랐었습니다. 6명의 비행기 표 값만 최소한 500달러씩, 3천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 이들 6명의 호텔비와 식비 그리고 흥목사와의 호화 미팅 등을 생각한다면 얼마가 지출 됐을 지를 누구라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돈 중에는 장로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용돼진 액수도 상당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 부정으로 빼돌렸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박석재와 엄문섭 장로가 이미 임기가 끝났는데도 “아직 아니다”면서 버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교회가 돈을 나눠먹는 이권단체냐, 싹박질하는 한인회냐 미리 나가는 것이 덕이다, 안나가려는 것은 바로 부정.

이들의 임기문제가 밖에 나가자 한인 교계인사들은 한결같이 의아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큰 교회의 한 장로님은 “아니 왜 안 나간단 말이나? 교회 일은 봉사 직인데 그런 말이 나오기전에 그리고 그런 말이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그만 두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임기 이전에 그만 두는 경우도 많다. 그것은 덕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안나가려는 것 그 자체가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이해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장로님도 “교회가 돈을 나눠먹는 무슨 이권단체란 말인가? 아니면 맨날 싹박질만 하는 한인회란 말인가? 못 나가겠다니 그게 무슨 오기란 말인가? 교회를 위한다는 장로라면 문제가 일어난 그 즉시 그만 두는 것이 장로의 본분이다”면서 오히려 분개했습니다.

“안 나가겠다”는 전통(?)은 노수정 장로 때 만들어진 수치스런 악습입니다. 그 때 노장로는 변호사의 문건까지 들추면서 거짓으로 버티다가 결국 끌어내다 시피해서 물러났습니다. 그 때 박석재와 엄문섭 장로는 우리들 앞에서 직접 노장로를 비난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랬던 그들이, 이번에는 “내가 왜 나가야 하느냐?”면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것은 교회 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박석재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이영세, 박환, 채홍인 장로 등 6명은 그동안에 건축헌금과 비전헌금, 특별지정헌금, 북한 선교헌금 등 특별 헌금들을 단 한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써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봉투에 넣어 내고 있는 선교헌금도 선교지역에 가지 않고 모자라는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를 위해 쓰라면서 힘든 경제여건 속에서 정성스럽게 마련해 바쳤지만 선교현장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장로들의 손아귀에서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월 22일 박환장로가 3부 예배 대표기도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입니다.

이들 장로들은 9월 재정 보고서에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만 무려 8만 여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라면 우리교회는 10월이나 11월 중에 파산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잡히고 은행에서 돈을 꾸어 와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들도 우리 교회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선부른 모험은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하는 교인들 쫓아내려고 TRO 신청 등 4번이나 소송 변호사비로 수십 만달러 쓰고는 교인들에게 책임 전가

지난 10월 3일 주일 2부와 3부 대예배 광고시간에 박석재 장로는 당회소식이라면서 10여분동안 횡설수설, 중언부언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박석재 장로는 교인들이 6명의 장로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많아 소송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뉴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실로 가증스런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박제임스(박석재) 장로는 7명의 교인들을 살인 혐의로 TRO를 신청했었습니다. 지난 3월 12일의 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소송입니다.

TRO가 판사에 의해 거절되자 이번에는 민사로 이 소송을 진행했으나 지난 5월 21일에 열린 정식 재판에서 판사에 의해 기각당했습니다. 두번째 소송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영송장로가 포함된 당회원 전원이 21명의 교인들을 상대로 TRO를 신청했습니다. 이것도 판사에 의해 지난 9월 27일 거절됐습니다. 3번째 소송이었습니다.

이영송장로를 포함한 박석재장로 등 당회원 전원은 다시 TRO신청에 이어 정식 재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이 편지를 받아볼 때인 오는 10월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4번째 소송입니다.

박제임스(박석재)를 비롯한 이영송, 엄문섭, 박환, 이세훈, 이영세, 채홍인, 최수남 등 장로들은 교인들을 상대로 지금 4번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교인들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 그것도 한번이 아니고 4번씩이나, 그나마도 모두 기각 당했고 기각 당할 소송을 하고 있다니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 4건에 달하는 소송의 변호사비만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호사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낸 헌금에서 이미 지불했거나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석재 장로는 마치 우리가 교회 재정을 축내기 위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이날 주장했습니다.

박석재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자기들 돈은 한푼도 쓰지 않고 오직 교회돈만으로 흥청망청 변호사 비를 내면서 몇 사람을 쫓아내려는 소송을 설명해드린대로 벌써 4번째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송을 당할 때면 우리는 우리들의 주머니에서 변호사 비를 내야만 합니다. 우리와 교회 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소송은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억울해도 당해야 하는 것이 소송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장로들이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마구 해대는 소송 때문에 어쩔 수없이 서로의 주머니를 털어 막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박석재 장로는 우리들이 교회 돈을 축내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그것도 하나님의 집, 강대상에서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을 위한 웹사이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www.klifeusa.com 에 가시면 동양선교교회란이 있고 그곳을 클릭하면 이 글을 포함해서 동양선교교회의 최근 소식 등 많은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직접 글을 쓰실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방법도 그 안에 기록돼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또 한인 사회의 뉴스와 문학인들을 위한 "문예 마당"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나 수필, 단편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www.klifeusa.com 입니다

동양선교교회 외복 대책위원회의